

현대차, SUV 앞세워 내년 승부수 건다

美·中, 1분기부터 '코나' 본격 판매 국내시장 2018 맥스크루즈 모델 내바

현대자동차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력 차종으로 내세운다.

4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 1분기 미국과 중국에서 국내에서 인기몰이를 한 소형SUV 코나 판매를 강화한다. 국내시장에는 대형 SUV 맥스크루즈의 2018년식 부분변경 모델 판매에 나섰다.

코나는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동급 판매 1위를 기록한 차량이다. 미국에는 지난달 29일 '2017 LA 오토쇼'를 통해 첫 공개됐고, 중국에는 지난달 17일 중국 '2017 광저우 국제모터쇼'를 통해 '엔시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코나는 내년 1분기 중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다. 1.6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이 탑재된 1.6T 모델, 누 2.0 앳킨슨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2.0 모델 등 두 개의 모델로 출시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LA오토쇼에서 소형 SUV '코나' 공개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을 완성했다"며 "세련된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성능을 바탕으로 젊은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소형 SUV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중국에서도 내년 1분기부터 '코나'를 바탕으로 중국 소비자의 운전 습관과 기호 등을 반영해 중국형으로 출시한 '엔시노'를 본격 판매, 중국 SUV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1.6 가솔린 터보 GDI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이 탑재됐으며, 탄탄하고 역동적인 실루엣을 구현한 '로&와이드 스텝스'를 바탕으로 현대차를 상징하는 캐스캐이딩 그릴, 슬림한 주간주행등(DRL)과 메인 램프가 상·하단으로 나뉜 분리형 컴포지트 램프, 범퍼·램프·휠을 보호하는 형상의 범퍼 가니쉬인 '이퍼' 등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광저우 모터쇼에서 '엔시노'의 제품 콘셉트를 쉽게 알리기 위해 마블(MARVEL)과 협업을 통해 제작한 '엔시노 아이언맨 스페셜 에디션 쇼카'를 함께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대차는 중국 전략형 SUV '신형 ix35'도 광저우 모터쇼를 통해 공개했다. '신형 ix35'는 2010년 출시 이후 7년 동안 77만 대 이상 판매된 베이징 현대의 베스트셀링 SUV 'ix35'의 후속 중국 전용 모델로, 강인하고 단단한 커넥티드 SUV'를 콘셉트로 제작된 차량이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을 위한 SUV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스마트 라이프를 지향하는 고객과, 실용에서 프리미엄 성향의 고객까지 중국 소비자층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시장에서는 지난 4일 프리미엄 대형 SUV '2018 맥스크루즈'가 시판되기 시작했다. 2018 맥스크루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강화 ▲안전·편의사항 적용 트립 확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립 추가 등이 특징이다.

뉴시스

광주에서도 '롱패딩 판매 급증'

광주신세계, 평창·여고생 영향 판매량 3~4배 증가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과 여고생 선호로 광주지역에서도 롱패딩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겨울 정기세일을 실시한 결과 전체 판매실적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음에도 스포츠·아웃도어 부문은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스포츠·아웃도어의 판매실적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겨울 롱패딩이 여고생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패딩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배 가량 증가했으며, 상품 부족으로 남성은 구매 후 일주일 가량, 여성은 한 달 가량 기다려야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다.

정기세일 전체 실적은 전년 대비 0.7% 하락했다.

장르별로 명품 -2.2%, 핸드백 -33.2%, 구두 -7.4%, 여성패션 -9.6%를 기록한 반면 화장품은 14.7% 성장을 보였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패딩 이슈로 인해 타 브랜드에서도 패딩 구매율이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고생 사이에서 롱패딩이 유행한 것도 판매량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한달 내내 크리스마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어 괜히 행복한 기분이 든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가 운영하는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는 12월 한 달 내내 따뜻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산타 걸로 변신한 인어의 특별 공연인 '해피 아쿠아미스'를 준비했다. '해피 아쿠아미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관람 가능하며 공연 시간은 11시, 13시 20분, 14시 20분, 15시

20분, 16시 20분 총 5차례 메인수조에서 진행된다.

또한 12월 매주 평일에는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연출된 수조가 드러나도록 인증샷을 촬영한 후 #아쿠아플라넷여수, #크리스마스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올리면 소원서를 받을 수 있다.

겨울 여행으로 여수를 방문했다면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12월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자.

여수=송기홍 기자

지역광판·미배장소·정문직접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기아차, 첨단주행기술 장착 '2018년형 K7' 출시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고객 선호시양 확대 적용



기아자동차는 4일 최신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과 고객 선호시양을 확대 적용한 '2018년형 K7'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2018년형 K7는 고속도로 주행보조(HDA)를 스티어링에 이어 기아차

에서 두 번째로 적용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설정 주행을 할 때 자동 활성화되는 기능으로 ▲앞차와 거리 유지 ▲차로 유지 ▲도로별 제한속도에 따른 주행 설정 속도 차

동 변경 등의 기능이 포함된 첨단 주행 안전기술이다.

소비자 선호 사양인 ▲후측방 충돌 경고(BCW, 구 BSD) 기능 ▲동승석 통풍 시트 ▲뒷좌석 측면 자동식 선풍기를 2.4 가솔린 리미티드 트림에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기존 모델에서 동승석까지 적용했던 시트벨트 리미티드를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해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으며,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량 배터리 전력이 과다 사용될 경우 경고 문구를 표시해 주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장착했다.

이 밖에도 ▲LED 램프 적용 ▲클러스터 디자인 완성도 향상 ▲신규 우드그레인 컬러 적용 ▲아날로그 시계 디자인 변경을 통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했다.

2018년형 K7은 합리적 가격대에 고배기량의 성능과 안정적 주행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신규 파워트레인을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가솔린 3.0GDI는 8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하고 최고출력 266마력(ps), 최대토크 31.4kgf·m의 동력 성능을 확보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을 적용, 첨단 주행 안전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 외에도 하이브리드 전용 공력 휠 디자인 변경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기존 프레스타지, 노블레스 2가지로 운영되던 트립을 프레스타지,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3개 트립으로 확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18년형 K7 2.4 가솔린 모델은 3105~3330만원, 2.2 디젤 모델은 3405~3630만원, 3.0 가솔린 모델은 3375~3550만원, 3.3 가솔린 모델은 3725~3990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3590~3975만원(세제 혜택 후)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8년형 K7과 K7하이브리드는 첨단 주행 안전 기술과 파워트레인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준대형 세단 K7의 뛰어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